

광주·전남 3000명대 눈앞...경로 미확인 확진자 속출

스스로 검사·격리·치료 '셀프 관리'에 숨은 감염자 상당수 우려 60세 이상 확진자 일주일새 2배 이상 증가...위중증·사망 늘어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사실상 30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학조사 방식이 기존 심층방식 대신 개인 판단에 맡기는 '셀프역학 조사'로 전환되고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 곳곳에 존재할 것이라는 게 방역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539명, 전남 1264명 등 2803명이 신규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남구 한 종합병원에서 1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81명을 기록했고,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에서도 2명이 추가돼 71명이 누적 확진됐다.

특히 아직까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만 9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타인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미확인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 내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만 417명이 발생했다.

전남은 이날 나주에서 236명이 확진돼 가장 많았고 여수 191명, 목포 163명, 순천 143명 등 22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다.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포 요양병원과 나주 요양원, 고흥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각각 5~22명이 신규 확진됐다.

또 목포의 또 다른 요양원과 나주 아동복지시설, 함평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연일 5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월 둘째 주(2월6~12일)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또 60세 이상 확진자가 한 주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다시 많이 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산세도 거세다.

1월 셋째 주 50.3%에 그쳤던 국내 오미크론 변

이 검출률은 1월 넷째 주(1월23~29일)에 80.0%까지 대폭 늘어난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주엔 96.9%로 집계됐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확실하게 지배종이 되면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 지수도 2월 첫째 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1.60을 기록, 4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6, 비수도권 1.67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 시키는지를 나타낸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이하면 '유행 감소'를 의미한다.

전체 유행 규모와 고위험군 확진자 수가 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재원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306명으로 전날(288명)보다 18명 늘면서 17일 만에 300명대대로 올라섰다.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도 직전주 272명에서 275명으로, 주간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46명에서 187명으로 늘었다.

지난 주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92.5%(173명)로 대부분이었으며, 40~50대가 6.4%(12명)였다. 나머지 2명은 각각 30대, 10대 사망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8세 이상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첫날인 14일 광주 북구 보건소 접종실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급 불산시 지원할 노바백스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자가키트 30만개 확보...중증장애인·임신부에 우선 공급

12세 미만 대상자는 정부 수급 상황 따라 별도 배부

광주시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30만개를 확보하고, 중증 장애인과 임신부에 우선 배부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애초 선별진료소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 중증 장애인과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2세 미만에게 한 달분(25개

들이 한 상자)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공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선별진료소 등 수요량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물량 공급을 중단하기

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민간 물량 30만개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번 주내로 중증 장애인(3만명), 임신부(7500명)에게 1인당 8개씩 우선 배부한다.

12세 미만 어린이 등 나머지 대상자는 앞으로 정부 수급 상황에 따라 별도 배부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재택치료의 모든 것...전화로 상담하세요"

전남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구축 24시간 운영

"재택치료의 모든 것 전남 도내 23개 코로나 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14일 전남도가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역할을 소개하며 도입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새벽 0시까지 도내 재택치료 환자가 6236명에 달하고, 일 확진자의 80~90%가 재택치료 중인 현실을 언급하면서 "각 시군과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통해 재택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10일 도내 23개소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구축했다. 상담센터는 의료·보건·행정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운영한다. 보건소에

설치된 상담센터에서는 24시간 동네 병·의원과의 연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도내 104개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다른 시·도가 의료와 행정 부문을 이원화해

상담하는 것과 달리, 전남에서는 의료 및 행정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발열, 기침 등 증세에 관한 간단한 문의부터 홀로 사는 주민의 경우 처방 약 대리 수령 전달 요청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격리해제 시점, 방역 수칙, 방역물품 지급 여부 등 코로나19 행정 사항까지 전화 상담할 수 있다. 전남도 코로나19 상담센터는 061-286-1339이며, 22개 시군 상담센터는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입아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시세 1억→금매 8천만원, 2/28까지 소유자 직매. 010-9469-8600

영광 찰보리빵·완도 전복빵·진도 올금 도넛...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특화 빵' 인기

전남지역 대표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재치 만점 빵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32개 업체가 개발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빚은 28종의 지역특화 빵을 생산, 농어업인과 청년·여성 사업가가 상생하는 성공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완도 전복빵, 해남 고구마빵, 광양 꽃빵, 여수 옥수수빵, 순천 칠계빵, 구례 쪽부쟁이빵, 영암 무화과빵, 영광 찰보리빵, 나주 배달빵, 고흥 유지빵, 강진 책빵 및 황가 올리빵(가우도), 진도 올금 도넛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 완도에서 '달스윗'을 창업한 청년사업가 조홍주 대표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해조류 등을 원료로 만든 최고급 수제 웰빙 찰보리빵(전복)을 판매해 연간 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 대표는 비릿한 향이 날 수 있는 수산물을 이용해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빵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조 대표는 "찰보리빵에 들어간 전복의 쫄깃쫄깃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완도를 찾으면 꼭 맛볼 간식 중 하나로 알려져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현재 2곳인 체인점을 5곳으로 늘려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해남에서 데리이스(주)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 장순이 대표는 2017년부터 100% 해남산 고구마와 쌀 등을 이용해 고구마빵과 감자빵을 생산, 연간 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광양에서 광양빵가게를 운영하는 임옥전 대표는 광양의 대표적 임산물인 매실과 대봉감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꽃빵과 매실쿠키를 개발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mall.kr)'와 광양을 찾은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특화 빵은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며 "시·군과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해 전남형 지역 대표 빵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해 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바름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트리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전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옹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유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동주 010-3454-2389

사람을 찾습니다
성: 김해 김씨
女, 67세, 원송이씨
생일: 10월 13일 (시: 오전 11시)
010-5061-249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이에 신고하오시고, 시가 바뀔때,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상 장소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산41
2. 분묘구수: 8기
3. 개장사유: 대지탈용 및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언분묘: 연고자의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할청 규정제외의 공공묘장(입장부담) 5. 안락장사: 전일 합동으로 합동함 함장료 933-433(상당수요공판)
6. 안락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90일
8. 공고인 및 문의: 장사주(010-4610-0005)
9.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와 확인(사신확인)하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증명서류(혹보, 제적등본, 사신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서에 신고
10. 기타: '개장공고 후 중립지내'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송구가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할 함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공고인: 정석주 (010-4610-0005)

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광원이엔시(이하 "갑")와 다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을")는(은) 2022년 2월 14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정보통신서비스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이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지 않게 하는 "합병"이 인가된 사실을 공시하며, 이 합병으로 인하여 "갑"은 존속하지 않게 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갑" 주식회사 광원이엔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로 20-3, 2층(우산동)
대표이사 강은미
"을" 다진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동매마을길 25(동림동)
대표이사 김은숙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영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